

김동진 교수 민법 객관식문제풀이

법학교육의 전통의 강자! 한림법학원!

변리사시험 민법의 새로운 대세! 김동진 민법!

▶ 교재의 단순화 : 변리사 민법은 [민법공방]과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 - 딱 2권이면 끝입니다.

민법 객관식문제풀이

■ 강의일정 2019년 9월 16일(월) ~ 10월 18일(금), 월~금 강의, 총 25회
오전 9:20 ~ 13:00

■ 교재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김동진 편저, 피테스) + 시험장노트(월비스)

■ 문의사항 다음카페 [「변리사 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에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의특징 [1] 교재 소개

I.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

1. 문제의 구성

- ① 변리사 기출문제는 2019년 최신 문제까지 모두 수록을 하였습니다.
- ②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변리사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최신 3개년 변호사시험 문제는 거

의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만큼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사례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 해설에 관하여

시중의 기존 변리사 민법 문제집을 보면 그저 판결요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례 문제의 경우에도 분명히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판결요지만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수준의 해설이라면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은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 지문이 틀리고 옳은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례 문제의 경우, 판결요지만 인용하고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사안의 포섭을 매우 정치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러한 사안의 포섭에 관한 해설을 정독하다보면 저절로 사례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체득될 것입니다.

3. 알림사항

실강생 분들은 9월 16일 개강 첫날 학원에서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 교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시험장노트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출간이 조금 지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민법총칙 부분은 프린트로 제공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식으로 출간을 하겠습니다. 실강생 분들에게는 「시험장노트」 교재는 무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II. 시험장노트

① 시험장노트는 정리해야 하는 내용·암기가 필요한 내용·복잡한 논의이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2018년에는 프린트를 하여 강의자료로 제공을 하였고, 시험 막바지에 임박하여 특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식 교재로 출간을 하여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② 시험장노트가 분량이 많으면 시험장에서 빠르게 1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량은 80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 스스로 암기할 사항들을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③ 시험장노트는 이번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사례를 풀 때에 그 핵심 내용을 먼저 시험장노트로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할 때 그 전날 배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복기(復棋)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이후에는 시험장노트 단기특강의 교재로도 계속 활용될 것입니다.

[2] 우리가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보아야 하는 이유는?

1. 민법 95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끝까지 반복해야 할 교재는 기본서(민법공방)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리사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묻고 있으며, 매우 단순한 조문 문제도 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제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본서의 회독수를 올려가면서 기본 내공을 키워야 하는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을 통하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출제의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을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 집착하고 의문을 품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엉뚱한 지문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빠르게 풀지 못하여 시간이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본인께서 민법을 2~3년 이상 열심히 하였음에도 점수가 저조하다면, 대체로 이 부류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객관식 풀이과정을 통하여 객관식 민법을 대하여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환하셔야 합니다.
- ② 기본강의 등을 통하여 민법공방(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최소 2회독 이상을 한 상태에서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을 풀어보면 스스로 민법 내용에 관하여 오해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오해를 풀고 다시 민법공방을 보면 그 내용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민법공방 내용의 강약 조절도 스스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의미한 의문점은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 ③ 민법공방만 읽으면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집을 풀다보면 유독 이해가 되지 않고 많이 틀리는 단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야 민법 지식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약 1달(9월 16일 ~ 10월 18일)의 강의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I. 예 습

- ① 객관식 문제풀이강의는 기본강의 및 중급강의보다 훨씬 더 예습이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예습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이하에서 제시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순서 1. 필수> 진도표를 보고 그 범위만큼 민법공방을 조문과 밑줄 위주로 정독한다.
<순서 2. 필수> 문제집을 펼쳐서 범위 안의 여러 문제들 중 「사례형 문제」는 설문을 읽고 직접 甲, 乙, 丙 을 도식화하여 그림을 그린 후 간단히 문제를 풀어본다.
<순서 3. 임의> 위 순서 1. 2.를 모두 이행한 후에도 시간이 남는다면, 「사례형 문제」 이외의 문제들도 간단하게 한 번 풀어본다.
- ② 다만, 민법 초학자이시고 위와 같은 예습과 함께 복습을 하는 것이 너무 벅찬 경우라면 진도 범위만큼 민법공방(각자 기본서)를 읽고 복습에 보다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I. 강 의

1. 강의 진행 방식

모든 문제를 모두 풀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만큼은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2. 교재 정리에 관하여

작년에 변리사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다시 문제를 풀어볼 요량으로 수업시간에 책에 표시나 밑줄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선택이지만 저는 위와 같은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객관식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풀 생각으로 책에 표시나 밑줄을 전혀 해두지 않으면 다시 「민법공방」과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의 회독수를 올려가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선생님, 기본서는 안보고 객관식 문제집만 보아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12월 무렵에 하게 됩니다.

반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밑줄을 하라는 부분에 밑줄을 하고 여러 표시를 해두면 다시 객관식 문제집을 볼 때에도 막막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줄 표시를 잘해놓고 민법공방과 함께 객관식 문제집을 최소 3회독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충분히 연습해놓고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면 12월 이후에 출간될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집 1권 더 풀어보면 됩니다.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의문을 갖게 되고 불필요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제가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하고 가필을 해드리는 것들은 책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3. 미출제 최신 판례 등

아직 시험에서 출제되지 못한 중요최신판례들은 오엑스 형식의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정리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것이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Ⅲ. 복 습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에 담긴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공방의 내용만 알면 그대로 풀리는 것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법공방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풀기 힘든 내용입니다. 주로 전자는 단순 조문이나 판결요지의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고, 후자는 난이도가 높은 사례형 문제들입니다.

앞서 저는 가급적 끝까지 민법공방(기본서)로 회독수를 늘리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습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민법공방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풀기 힘든 사례형 문제는 공방 관련 내용 옆에 간단히 요약해서 가필을 해둔다. 간단히 가필할 수 있도록 요약 내용은 제가 수업시간에 직접 알려드릴 것입니다. 알려드리면 체크를 해두었다가 그대로 민법공방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 ② 단순 조문이나 판결요지의 내용을 묻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면, 민법공방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사건번호 등에 표시를 하시고 본인이 오답을 한 이유를 간단히 메모해두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법공방에 정리를 해놓으면 점점 객관식 문제집에서 틀리는 내용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해도 되지 않고 암기 역시 되지 않는

내용은 「시험장노트」에 메모를 한 후 시험장에 가서 시험보기 직전에 눈에 바르면 됩니다. 이해 및 암기가 되지 않은 내용도 방금 보았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식 시험의 특징입니다.

[4] 마무리

민법공방 제2판은 이미 2쇄까지 발행이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변리사 강의를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기본강의 및 중급강의 모두 대단히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객관식 문제풀이강의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자신 있고 재미를 느끼는 과정이 문제풀이강의이고, 정규강의의 마지막 과정이기도 합니다.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부터 시험장노트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저를 믿고 1달만 동안만 민법에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도표는 아직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이 정식 출간되지 못한 상황이라 개강 직후 학원 홈페이지와 「변리사 민법 공방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시간에 뵙겠습니다.

- 김동진 배상